

프란치스코 교황님의 "하느님을 찬양 하여라! (Laudate Deum)" 에서 영감을 얻은 기도문

아래의 기도문은 미국 가톨릭 주교회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문헌 "[찬미받으소서 \(Laudato Si\)](#)" 에 이어 생태계 보존을 위해 발표하신 새로운 권고 문헌 "[하느님을 찬양하여라! \(Laudate Deum\)](#)" 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기도문입니다.

우리는 모든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,
"나뭇잎, 산길, 이슬방울, 가난한 사람의 얼굴에 펼쳐지는"¹ 하느님의 신비를 찬양합니다.

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,²
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궁금해하라고 가르쳤습니다.

오 신이시여,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대한 경건한 인식을
우리안에 불러일으키기를 기도합니다.

우리는 창조되었고 창조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위한 겸손을 기도합니다.

우리는 해수면 상승과 가뭄으로 인해 그들의 집에서 도망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
열린 눈과 마음을 위한 연민을 기도합니다.

우리는 권력과 지배에 대한 갈증이 봉사로 바뀔 수 있도록 회개를 기도합니다.

우리는 단순함과 모든곳의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탐욕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위해
기도합니다.

우리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단순화하며, 오염과 낭비를 줄이고,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
문화적 전환을 기도합니다.

우리는 국가와 세계로서 기후 변화의 과정을 되돌리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기도합니다.

곰곰히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,
"세상은 무한한 사랑을 노래합니다: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?"³

하느님,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,
우리가 공동의 집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당신을 찬양합니다.

아멘.

¹ Laudate Deum, Laudato si, 233 쪽 인용

² Laudate Deum, 64 쪽, Laudato Si, 97 쪽 인용

³ Laudate Deum, 65 쪽